

금호타이어, 수익성 회복 지연 우려

대우증권, 2/4분기 실적 기대 이하 ... 회복 시점은 4/4분기 이후로 지연

대우증권은 7월31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2/4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.

박영호 애널리스트는 “2/4분기 영업실적은 원료코스트 부담과 함께 중국 생산물량의 본사 수익기여 감소, 직수출 부진 등으로 당초 예상치를 하회했다”고 밝혔다.

또 “예상보다 큰 원료코스트 부담과 판매가격 인상 효과 지연, 주요 수출 매출 부진 등을 감안할 때 2005년 상반기 수준으로 수익성을 회복하는 시점은 당초 예상인 2006년 3/4분기에서 4/4분기 이후로 지연될 것”으로 전망했다.

박영호 애널리스트는 “중국 등 해외생산 중심의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, 당분간 반감된 밸류에이션 매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”이라고 분석했다. (서울=연합뉴스 이웅 기자) <저작권자(c) 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06/07/31>